

IV.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교화방안 모색

(문화·훈련기관을 중심으로)

강해윤 위원*

(수위단회 교화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원불교 교화의 변화.....	23
2. 문화·훈련기관의 현실.....	24
3.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문화·훈련기관의 대응방안.....	24
4. 새로운 교화를 위한 선결과제.....	26

1.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원불교 교화의 변화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어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은 필연적인 노동 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동환경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생활방식의 일대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교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불교에서도 이 기회를 통하여 교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도입과 교단과 교화시스템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 강해윤 위원 : 원기 86~88년까지 수위단회 교화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은혜의 집 교무로 근무하고 있다.

2. 문화·훈련기관의 현실

문화기관, 문화시설, 각종 훈련시설 등이 교단 내에 산재되어 있는 가운데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운영에 대한 안정성과 각 기관과 시설에 적합한 방향과 진로의 설정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정체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각 기관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전체 원불교 교화에 대한 변화와 함께 훈련·문화·교화의 새로운 틀이 연구되어야 합니다.

3.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문화·훈련기관의 대응방안

주 5일 근무제에 대전제는 다음과 같은 3가지를 먼저 설정할 수 있습니다.

- ① 여가 시간이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 ② 이를 활용할 경제력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 ③ 정규 고용의 기피와 서비스업의 발달로 전반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해 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제를 두고 본다면 여가 시간을 보다 경제적으로 활용할 건전한 여가 활용 프로그램이 요구됩니다. 또한 고용의 불안정은 곧바로 정신적인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바탕으로 원불교의 문화·훈련기관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그 영향이 교화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파급되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과학적인 훈련방법의 개발

원불교 훈련법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정기훈련 11과목에 대한 과학적인 방법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중학 협동으로 원광대에 ‘마음공학연구소’를 만들어 의식, 또는 무의식의 상태와 같은 마음의 실체를 감지할 수 있는 과학적인 매체를 만들어 내

고 이를 활용하여 현재 훈련기관을 비롯하여 새로운 도심권 훈련기관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예) 선(禪) 상태의 영상화, 음악적 염불, 3차원의 강연, 무의식정화 프로그램

2) 훈련장의 특성화

교육·훈련 산업 분야가 발달하여 성인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극기 훈련을 통한 감동과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상을 만들어 가는 훈련 방식은 이제 새로운 환경에 맞는 훈련방법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각 훈련장마다 새로운 방법을 계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특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교단의 대표적인 훈련기관에서는 이를 정착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 왔지만 좀더 미래지향적이며 선진적인 방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1) 농원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훈련장의 생명, 건강, 취미, 여가활용을 극대화한 주말농장 프로그램.

예2) 복합훈련장 조성 - 레저, 훈련, 휴양기능을 가진 복합 타운을 1개소 정도를 집중 육성하도록 하자.

예3) 훈련장의 탁아 프로그램.

예4) 청소년 교화를 위한 주말 학교 프로그램.

3) 문화·훈련기관의 연계활동

① 교당 법회활동의 개념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교당은 의식 위주의 교화현장으로 점차 바뀌면서 법회, 훈련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와 함께 결혼, 회갑, 장례와 같은 의식문화를 선도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② 교당에서 이루어지는 법회활동의 변화를 훈련기관에서 수용해 내야 하기 때문에 훈련기관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③ 가족단위의 주말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문화기관(방송, 신문, 잡지 등)에서 만들고 이를 연결하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제를 선정하고 행사를 만드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예) 기도처를 찾아 떠나기, 성적지 순례 등.

4. 새로운 교화를 위한 선결과제

- 1) 교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정립과 교단 시스템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 2) 훈련기관 운영진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3) 다양한 계층에 대한 교화의 범위 확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